

동물원 우리 탈출한 180kg 곰 2마리, ‘꿀 창고’로 직행

55분간 꿀 일주일 치 먹고 우리로 복귀
관람객 16명 헛간으로 대피...한때 소동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체중이 180kg인 거대한 불곰 두 마리가 우리 밖으로 탈출하는 일이 있었다.
관람객이 대피하고 긴급대응팀이 출동하는 등 난리가 일어나는 동안 곰들은 근처 꿀 창고로 직행해 배가 부르도록 꿀을 다 먹어 치우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 우리로 복귀했다고 한다.
2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엑서터 인근의 동물원 ‘와일드우드 데번’에서 전날 오후 ‘미슈’와 ‘루시’라는 이름의 다섯살 짜리 유라시아 불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
전날 오후 3시께 곰들이 울타리를 뚫고 직원 구역으로 들어온 것이 발견됐고 동물원 측은 관람객 대피와 출입 통제 조치인 ‘코드 레드’(code red)를 발령했다. 어린이를 포함한 관람객 16명은 헛간으로 대피하고서 문을 잡았다.
총기 훈련을 받은 동물원의 긴급대응팀이 배치되는 한편,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지원 태세를 갖췄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 속에 동물원 직원들이 CCTV로 탈출한 곰들을 감시했는데 정작 곰



우리를 탈출한 곰들. /AFP=연합뉴스
들은 태평한 모습이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냄새를 맡던 곰들은 열

려있는 창고에서 꿀을 발견했고, 일주일 치 꿀을 순식간에 먹어 치웠다. 이 꿀은 곰의 간식용으로 동물원 측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원을 운영하는 보호단체 와일드우드 트러스트 관계자는 “곰들이 잔치를 벌이고 뛰어놀고 밧줄을 잡아당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꿀을 잔뜩 먹은 미슈는 졸린 상태로 다시 우리로 돌아왔고, 루시도 직원들이 종소리와 좋아하는 음식으로 유인하자 뒤따라서 우리로 들어갔다.
이렇게 곰들은 배부르고 행복한 상태로 쉼

간의 탈출을 끝냈다.
동물원 관계자는 “곰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꿀이나 땅콩버터, 잼 등 좋아하는 먹이를 찾는다”며 “후각이 뛰어나서 숨겨놓아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탈출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동물원은 이후 다시 문을 열었다.
동물원 측은 곰들의 탈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매 사이인 미슈와 루시는 새끼 곰이던 시절인 지난 2019년 알바니아의 눈사태에서 구조됐고 4년 전 와일드우드 데번으로 왔다고 동물원은 전했다. /연합뉴스



중국 홍수 24일(현지시간)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충칭(重慶)에서 건물들이 침수돼 있다. 베이징 관영 언론은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에 극심한 홍수가 발생해 8만1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AFP=연합뉴스

‘美 난임클리닉 테러 공모’ 한국계 추정 30대, 구치소서 사망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사인은 비공개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의 난임 클리닉 차량 폭발 테러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대니얼 종연 박(32)이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24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교도국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로스앤젤레스(LA) 다운타운에 있는 연방 구금센터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시설 내 요원들이 응급 구명 조치를 지속하면서 박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사망 신고가 내려졌다.
교도국은 이날 박 씨가 있던 시설 내 직원

나 다른 수용자가 다친 사례는 없으며, 공공에 영향을 줄 만한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
교도국은 미 연방수사국(FBI) 등 관련 당국에 박 씨의 사망 사실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국은 박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미 연방 검찰청은 팜스프링스의 난임 클리닉 폭탄테러범에게 폭탄 원료 등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도운 혐의로 박 씨를 체포해 기소한 바 있다.
박 씨와 범행을 공모한 캘리포니아주 출신 가이 에드워드 바트커스(25)는 지난달 17일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몰고 난임 클리닉 건물 앞에서 폭발시켜 건물 일부를 심하게 파손시키고 인

근에 있던 사람 4명을 다치게 했다. 바트커스 본인도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주말이라 난임 클리닉이 문을 열지 않아 병원 직원이나 환자와 관련된 피해는 없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박 씨와 바트커스가 극단적인 ‘반(反)출생주의’를 공유하는 온라인 모임에서 만났으며, 박 씨가 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대량으로 구매해 바트커스에게 공급하고 바트커스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폭발물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의 고유한 성씨인 박 씨에 ‘종연’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쓰는 점으로 미뤄 한국계 미국인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佛소비자당국, 테슬라에 과장광고 중단 명령

프랑스의 소비자보호 당국이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 과장 광고 중단을 명령했다고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경제재정부 산하 공정거래국(DGCCRF)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소비자 불만 신고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현지 지회사를 조사했다.
DGCCRF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과 차량 반납 보상 프로그램 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을 지연할 뿐 아니라 배송 장소에 대해 중

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하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DGCCRF는 테슬라에 대해 4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등에 대한 과장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5만 유로(약 7천89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테슬라는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반감과 전기차 업계의 경쟁 격화 때문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매출이 급감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서 인권단체 회원 7년 무단감금 끝에 사망”

인권단체 “수백명 재판 없이 감금”
파키스탄에서 인권단체 회원인 대학생이 공식 기소나 재판 절차 없이 7년간 감금돼 있다가 숨졌다고 미국 매체 아무TV가 2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 파슈툰족 인권단체 ‘파슈툰 타하푸즈 운동’(PTM)에 소속된 타지마놀라는 2018년 당국에 붙잡혀 투옥됐다가 최근 사망했다.
그의 가족과 가까운 한 PTM 회원은 전날 아무TV에 “그는 이제 겨우 30세가량이었고 체포되기 직전에 결혼까지 했다”면서 “그의 아내는 남편의 귀가를 수년간 학수고대해왔다”고 말했다.
PTM 회원들은 타지마놀라가 감금 기간에 가족 면회도 일절 불허됐고 당국은 어떠한 공식적 기소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TM은 타지마놀라가 파키스탄에서 적법 절차 없이 감금된 수백명의 PTM 회원 중 한

명이었다면서 “그의 죽음은 (파키스탄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부정의 가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밝혔다.
PTM은 파키스탄 내 파슈툰족 지역에서 일어나는 강제실종, 전시 인권침해, 불법 처형 등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PTM은 정치 적 반대세력에 대한 파키스탄 당국의 탄압을 오래 전부터 비판해왔다.
파키스탄 정부는 타지마놀라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갔다고 아무TV는 전했다.
인권단체들은 파키스탄 당국이 군사작전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재판도 없이 민간인을 오랫동안 감금하는 행위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해왔다.
유엔도 시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 절차를 이행하고 증거없이 감금중인 사람들을 풀어줄 것을 파키스탄 당국에 촉구해왔다. /연합뉴스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